

“천주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장정란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지난 해(2003년) 한국박물관협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에서 천주교 박물관은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포함되어 함께 다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독립 주제로 지정되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져 다행으로 여깁니다.

서종태 박사님의 「천주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천주교 박물관을 망라하여 소개한 발표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천주교 관련 박물관을 성지 또는 사적지에 있는 박물관, 성당 및 수도원에 있는 박물관, 대학교 및 연구소에 있는 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이에 연구소 부설 도서관과 기타 개인 설립 박물관도 첨가함으로써 천주교 박물관의 현황과 교회사 자료 소장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조성 경위와 그 규모, 유물의 종류와 내용, 관리 주체 등을 간략하나마 빠짐없이 언급함으로써 천주교 박물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천주교 박물관의 당면 과제로 정부의 해당 기관과 천주교 기관에서 박물관 및 유물의 수집·전시·보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과, 박물관의 낙후를 만회하기 위한 교회 당국자들의 유물이나 박물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박물관을 열린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촉구하였습니다.

발표자의 이 모든 논설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다만 몇 가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제언을 첨부하려 합니다.

1. 발표자는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집·전시·보관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 조직에, 예를 들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CBCK)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 산하 기구 중 우리나라 전체 천주교 박물관의 수집·전시·보관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구가 있는지요?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는 천주교에서 천주교 유물의 수집·전시·보관에 있어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기울인다고 하였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불교의 경우 등록 박물관이 7개, 개신교도 2개인데, 천주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2003년 한국박물관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의 박물관·미술관』에도 등록 박물관만 수록하여서인지 절두산이나 오륜대 박물관은 빠져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대표 박물관인 서울 절두산 순교 성지 박물관이나 부산 오륜대 순교자 기념관마저 미등록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나름대로 천주교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려 발표자의 논고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천주교 박물관 전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기구가 일사불란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기구를 적정한 전문인들이 맡아 전국 천주교 박물관 현황을 파악한 후, 역사적 안목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과제를 풀어 간다면 당장 성과가 없는 듯하여도 결과적으로는 박물관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천주교회 대표 박물관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물관은 현대적 기본시설은 물론, 해설자, 영상 시스템, 설명을 위한 헤드폰, 박물관 소개 팸플렛, 쉼터 공간 등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한편 수익사업도 겸하여 문화상품도 개발해야 합니다. 소위 캐릭터 상품으로 유물의 복제품, 박물관 및 소장품 책자와 그림엽서, 혹은 영상물, 한국교회사 서적, 신심서적, 이에 결들여 한국 고유의 문화재 복제 상품도 결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드폰과 서적은 적어도 영어본은 갖추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화상품은 박물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 박물관으로는 예를 들어 절두산 박물관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두산에는 매달 평균 만 여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 순례객이 있고 그 외에도 개신교 및 외국인 탐방객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적 유물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면 신자들에게는 신앙 재교육의 기회가 되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한국역사 교육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중 유물수집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선조들의 종교유물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 의해 파괴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유물들을 교회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그 소재가 파악된 귀중한 유산이라면 교회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단지 기증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여 지체 없이 매입해야 합니다.

넷째, 수집 및 전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제안하는 것은 다른 박물관 소장 천주교 관련 유물의 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초기 천주교 전래시기의 귀중한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데, 기독교 박물관 측이 허락한다면 이들을 복제하여 절두산 순교 성지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천주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웃 종교의 유물도 같은 방식으로 복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천주교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여 박물관을 홍보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박물관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역사적 배경과 연혁, 그 소장품 등을 상세하고 충실히 소개, 운용한다면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유물들을 세계에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